

다음에 그 사람을 만나면

벤 호건



당신에게 한 가지 선택이 있다. 당신은 곧바로 무언가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 처음에는 이해도 안 되고 당신이 그 사람에게 그것을 해줄 수 없을 것 같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계속해서 당신을 힘들게 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에게 뭔가를 해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당신의 그런 사정이 그 사람이 뭔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을 바꾸지는 못한다. 바로 그 순간은 당신의 기회다. 그것을 붙잡기 바란다. 그 사람이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이기 때문이다.

은혜는 받고는 싶지만 베푸기는 어려운 것. 많은 크리스찬들이 다른 사람들의 악행을 불평하고 자신들에게는 아무도 은혜를 주지 않는지를 말한다. 그런데, 그 크리스찬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지 않는다. 문제가 보이는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은 “속지 말라.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 뿌린 대로 거두리라”고 말한다. 뿌린 것을 거두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와 같이, 크리스찬도 은혜를 뿌리면 대부분은 은혜를 거둘 것이다.

그러나,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지만 돌아오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가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고 싶은 유혹이 들 때다. 만일 우리가 돌려 받을 은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은혜에 대해 잘 모르는 것이다. 왜냐하면 은혜의 정의가 받을 만하지 않은 사람에게 주는 도움이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해 에베소서 2장 8-9절에서 이를 분명히 했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너희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니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의 행위로도 아니니 이는 아무도 자랑할 수 없게 하려 함이라.” 이 보다 더 은혜를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은 없다. 은혜는 참으로 하나님의 선물로서 결코 선행과 선함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은혜는 언제나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는 선물이다. 그게 은혜의 정의다. 그래서 이 질문이 생긴다: 나같은 형편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큰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작은 은혜를 베푸는 것을 거절할 수 있는가?

다른 사람들에 대한 독하고 날카로우며 비판적인 태도로 그의 모든 선행을 다 까먹는 크리스찬들을 만난 적이 있는가? 당신이 교회의 형제 자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는다면 당신이 아무리 큰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해도 아무 소용 없다.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우리는 모른다. 다음에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공격적인 말을 하거나 좋지 않은 행동을 하거든, 한가지 부탁하겠다. 당신 자신을 생각하거나 당신의 기분을 생각하는 대신 그 사람이 무슨 일을 겪고 있기에 당신에게 그렇게 행동할까를 더 생각해 보라. 즉, 은혜를 베풀라.

그 사람은 너무 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밤잠을 설치고 있을지도 모른다. 당신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그 사람은 벼랑끝에서 있었을지도 모른다. 당신에게 험한 말을 한 그 때 그 사람은 당신이 모르는 사이 말할 수 없는 병 혹은 정신적 병을 이겨내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 사람은 당신이 상상할 수도 없는 어떤 무게를 짊어지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모든 것을 앗아갈 수 있는 이혼의 위기에 처해 있었을 수도 있고, 매일 24시간 싸우기만 하고 있었을 수도 있다. 당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있던 그 사람은 정말 믿을 것이 없어서 오직 그런 거짓들을 만들어 내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을 지도 모른다. 어쩌면 그들은 그들도 그런 거짓말들이 얼마나 한심한 것들인지 다 알고 속으로는 정말 부끄러웠을 수도 있다.

그 사람도 영혼이다. 그들이 누구든지 그들이 무슨 짓을 했든지 그들도 한 영혼이다.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은혜가 필요하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향한 사랑을 나타내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음이라”고 했다. 그리고 6장 23절에서는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생명이라”고 했다. 우리 모두는 영적인 죽음 외에 아무 것도 기대할 수 없는 죄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내어 주셨다. 그런데,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당신은 왜 줄 수 없겠는가?

이것은 당신의 선택이다. 당신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당신의 은혜를 필요로 할 때 당신은 이미 그것을 주려 마음 먹고 있기 때문에 당신은 오늘 그 선택을 할 것이다. 아직도 당신이 이에 대해 망설이고 있거나 힘들어하고 있다면 이말을 생각해 보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만큼 그들에게도 은혜를 주셨다면 ...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나 또한 그 은혜가 필요했었다. 당신은 어떠한가?